

# ‘섬의 가치 발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밑그림 확정

###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주제...연계사업 1천억 규모 실감콘텐츠·UAM 탑승 등 다채...지원단 내년 출범

여수시가 ‘섬의 가치 발견’을 추진 전략으로 세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이어졌다. 그간 전체의원 간담회, 주민 설명회, 중간 보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종합기본계획은 ‘섬의 가치를 발견하다’라는 큰 틀 아래 추진 전략을 담았다. 또한 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와 부행사장 개도·금도·여수세계박람회장은 물론, 그 외의 여수 모든 섬이 박

람회장화 되는 공간 개념을 제시했다.

핵심 콘텐츠가 될 주제관은 ‘바다의 무한한 가치’, ‘바다와 인류를 잇는 섬’, ‘섬이 꿈꾸는 미래’의 세가지 스토리라인을 토대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를 ‘이머시브 미디어 터널(Immersive media tunnel)’로 충실히 구현한다.

관람객이 온 몸으로 직접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첨단 IT기술을 통해 현실적이고 선명한 디지털로 표현된 작품을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로 제공한다.

UAM 탑승 행사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 내에 UAM 탑승장소를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별도로 마련, 관람객이 UAM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UAM 미니어처를 활용한 드론 물품 배송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전남도와 한시기구 설립과 별도 정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1

국 2차 체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재단법인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섬박람회 지원단은 내년 1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섬박람회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소외된 섬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7월 17일부터 31일간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여수시와 전남도가 함께 치르는 행사로 30여개국의 해외 참가국과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 6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4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비공인 국제행사다.

총사업비 212억원이 투입되며 시는 연계사업을 통해 1천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수=김진선기자

## 민선 8기 담양, ‘현장 행정’으로 변화 이끈다

### 이병노 군수 ‘현장에 답 있다’ 철학...매일 현장 방문 민원 2천여건 신속 해결...매일 현장점검 주간 운영

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밀착, 맞춤형 현장행정을 추진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군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

을 갖고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매일 오전 8시에 출근, 주민 면담과 사무실 업무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오전 일과가 끝나면 오후에는 매일 현장에 방문해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또 지난 1년간 열린군수실과 군민의 소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2천2

00여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같은 반응은 현장대응반을 상시 운영, 지역 곳곳을 살펴 대응이 필요한 곳은 민원 발생 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접수된 민원은 보수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 긴급 정비를 추진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결과다.

분야별 주요 사업 현장과 대표 관광지, 취락시설, 민원 발생 예상 지역 등을 앞서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점검 주간도 매일 운영하고 있다.

이 군수는 현장점검 주간에 관내 산업단지, 전통시장 재건축사업 현장, 동물보호센터 사업 예정지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점검하고 각종 민원 현장에도 방문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했다.

대표적으로 차가 자주 빠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농로의 확장, 도로 확장사업 중 무너진 담장의 재설치, 포트

홀이 발생한 위험한 도로의 보수 등 주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민원을 현장에서 즉각 조치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폭염·장마가 시작되는 6월 현장점검 주간에는 시설별 안전 문제를 사전 점검하며 총 191건의 민원 요소를 사전에 차단,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듯 담당 부서 공직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대화하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소통 방식은 민원 해결에 걸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하며 이 군수표 ‘현장행정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병노 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신속한 민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반응이 뜨겁다”며 “변화하는 행정을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주간을 매일 정례화하고 맞춤형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보성 울포솔밭해수욕장 텐트 장기 설치 등 단속

보성군은 26일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부터 울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불만을 샀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 행정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모두가 즐거운 울포솔밭해수욕장과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후보지 ‘연향들 일원’ 선정

### 스포츠·문화·융복합, 에너지순환 가능 최적 입지

순천시는 26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자원순환시설) 최적 후보지로 ‘연향들(하단부)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독립적 기구로 활동해온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와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순천시에 통보했다.

## “6·25 참전 용사 희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 장성군, 6·25전쟁 73주년 행사

장성군은 26일 “전날 장성군민회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6·25참전유공자회 장성군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성군민, 보훈단체 관계자, 김한중 군수, 장성군의회 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상무대 군악대 연주로 시작된 행사는 국민의례, 무공훈장 전수,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한중 군수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73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

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6·25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도심과 가까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하남의 유니온 파크보다 더욱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도입,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체육시설, 공원·문화시설 등의 융·복합 시설을 설치해 순천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 “질소함량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6·25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언제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본격화

### 고흥천 일원 침수 피해 예방...행안부 공모서 459억 확보 하도 준설·교량 재개설 등 오는 10월 착공·2026년 준공

고흥군이 고흥천 일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홍양홀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용역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주)한국종합기술의 용역 추진 현황·실시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침수 피해 예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흥2지구 종합정비사업은 고흥읍 시가지지를 관통해 흐르는 고흥천의 하폭이 협소하고 고흥시장 주변 저지대 내

수배제 불량으로 태풍, 집중호우 시 계속되는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통해 ▲고흥천 하도 준설(22.5km) ▲교량 재개설(3개소) ▲가동보 설치(2개소) ▲게이트펌프 설치(1개소) ▲급경사지 2개소 등을 정비한다.

군은 행안부 공모로 45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항구적인 침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군은 올해 3월 행안부로부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용역 종료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오는 10월 공사에 착공한다. /고흥=최복환기자

## “휴과 공생...지구·인간 살리는 기술”

### 구례군, ‘휴이 살아야...’ 국회 토론회 개최

구례군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휴과 공생하는 것은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휴과 인류의 공생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필주 국립경상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휴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에서 “휴은 온실가스의 배출원이자 격리하는 곳”이라며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농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환경 보존형 농업 직접 지불 사업을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의 50% 이상 절감 효과를 봤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 다양성 보존에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은 농경지 탄소 저장과 실질적 정량화에 대한 발표에서 “토양의 탄소축적률을 1%만 높여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2%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례=임종길기자

## 광양만권경제청, 산업부와 투자 활성화 간담회

### 송상락 청장·강장진 단장, 입주기업 수출 지원 등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상락 광양경제청장과 강장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활성화와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광양만권이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장진 단장은 “산업부에서도 경자유역 입주기업 지원 체계 강화와 핵심 전략산업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광양경제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강 단장은 이차전지 앵커기업(주)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과 포창제수출기업(주)송산팩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수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광양=양홍렬기자